
19.11 가능세계

20.06 금융안정성

22.예비 동일론

* **20.06 금융 안정성** 지문의 두 번째 문단 첫 문장에서 금융이란 어휘가 나옵니다. 이 지문에서 금융은 도대체 뭘까요?

* 위의 같은 지문에서 보기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답은 구하는데, 그 근거가 영성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 **19.11 가능세계** 지문의 42번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출제 오류입니다. 답은 4번이고 복수 정답으로 주장하는 선지는 3번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험장에서 풀었다면 3번이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음을 알고도 4번을 골랐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 **22.예비 동일론**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나온 예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11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답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

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39. 앞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06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게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 | A | B | C | D |
|---|----|----|----|----|
| ① | 불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② | 호황 | 거시 | 사용 | 미시 |
| ③ | 불황 | 거시 | 적립 | 미시 |
| ④ | 호황 | 미시 | 적립 | 거시 |
| ⑤ | 불황 | 미시 | 사용 | 거시 |

30. 밑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
 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
 (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예시문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취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

[A] 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뚜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5.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_____ 분에게 추천합니다.

- ①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려는
- ②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 ③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 ④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 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 ②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 ③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 ④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 ⑤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7. ㉦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②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③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④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나)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이 필요 없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 ③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 ④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 ⑤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9.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1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원자나 엑스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 ② ㉡: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 ③ ㉢: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 ④ ㉣: 똑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 ⑤ ㉤: 독립적인 존재인

- 21~17 & 22.예비 : 45+3 지문

학년도	제재			1등급
17.06	인공신경망	유비논증	음악의 다양한 특성	90
17.09	콘크리트	칼로릭	사단법인	90
17.11	지식의 구분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보험의 목적과 원리	92
18.06	수기치인	통화정책	DNS 스푸핑	89
18.09	하이퍼리얼리즘	LP 논리	집합의례	93
18.11	자연의 목적론	오버슈팅	엔트로피 부호화	94
19.06	심주지각설	계약	LFIA 키트	91
19.09	CDS 프리미엄	STM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	97
19.11	채권	우주론	가능세계	84
20.06	에피쿠로스의 자연학	금융안정성	개체성	87
20.09	영화와 역사	점유소유	비콘	90
20.11	베이즈 주의	레트로바이러스	BIS	91
21.06	과거제	영상안정화기술	ICT	92
21.09	미학	행정입법	항미생물 화학제	90
21.12	북학파	예약	모델링과 렌더링	88
22.예비	이원론과 동일론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	충전지와 충전기	None

- 23~22 : 24 지문

학년도	제재				1등급
22.06	사회적 차원의 독서	인과관계	베카리아의 형벌론	PCR	90 / 86
22.09	독서 일지	광고의 경제적 효과	반자유의지	메타버스	100 / 96
22.11	독서의 위대함	변증법	브레턴우즈 체제	차량 광각 카메라	85 / 84
23.06	읽기 능력과 메튜 효과	중국과 한국의 역사서	비타민 K의 역할	이중차분법	88 / 84
23.09	눈동자 움직임 분석	아도르노의 대중예술	유류분권	검색엔진의 원리	93 / 88
23.11	독서를 활용한 소통	중국과 조선의 유서	법령의 불확정 개념	기초 대수량 측정 방법	96 / 92

- 24학년도 : 12 지문

학년도	제재				1등급
24.06					/
24.09					/
24.11					/

등급컷 화법과 작문 / 언어와 매체

오답 문제들의 (공통 과목 오답 수)/(선택 과목 오답 수) 비율에 따라 표기된 숫자에 비해 등급컷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16~14 & 14.예비 B : 39+5 지문

16.11.B	도덕적 운 4	지식 경영 4	변론술 4	부력항력 2
16.09.B	설명이론 4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4	항암제 2	사진 4
16.06.B	호접몽 4	개체화 현상 4	암흑 물질 2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4
15.11.B	신채호 4	시민사회론 4	슈퍼문 2	취미 판단 4
15.09.B	맹자의 의 5	목란화 4	지방 정책 결정 3	점탄성 2
15.06.B	작가주의 4	정합설 4	별의 밝기 2	광고 규제 4

14.11.B	사소절 2	심신이원론 3	간접광고 4	전항력 2	베토벤 3
14.09.B	주희와 정약용 4	미술 종말론 3	공동 소송 4	돌림힘 2	30 1
14.06.B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 4	디지털 저작권 3	캄피돌리오 광장 4	단안 단서 2	30 1

14.예비.B	석가탑 2	데카르트 3	계층 귀속 의식 3	태양 4	매헌에게 씀 2
---------	----------	-----------	---------------	---------	-------------

- 16~14 & 14.예비 A : 32+3 지문

16.11.A	돌림힘 3	광통신 3	귀납과 연역 5	
16.09.A	해시 함수 3	산패 3	경쟁정책 5	
16.06.A	지문인식 3	원자 모형 3	메타 윤리학 5	
15.11.A	단백질 분해 4	디지털 영상 3	공공서비스 4	
15.09.A	취기재 3	CPU 스케줄링 3	자연법 5	
15.06.A	조명 기구 2	고고학 4	원유 살균법 2	인센티브 계약 3

14.11.A	불꽃반응 3	송선교 3	토인비의 역사 연구 2	CD 드라이브 3	
14.09.A	동물의 길찾기 3	CT 촬영 3	실재론과 반실재론 세계관 2	한옥의 창호 3	
14.06.A	빛의 산란 3	플래쉬 메모리 3	냉전 시대의 원인 2	입증 책임 2	30 1

14.예비.A	역사가들의 입장 차이 3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3	법률 해석 3
---------	------------------	------------------	------------

- 13~11 : 45 지문

13.11	귀납과 연역 4	영화와 만화 4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3	연금 제도 4	음성 인식 기술 3
13.09	공자의 예 4	반도체 소자 3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3	고대 사회의 놀이 4	바실리카식 성당 4
13.06	헤로도토스의 역사 4	나무의 물수송 3	이차 프레임 기법 4	하드디스크 3	자유 위임 방식 4

12.11	그림 이론 4	소리 그늘 4	외부성 2	중국의 한자음 학습 3	바로크 양식 4	불확정성 원리 4
12.09	대응설,정합설,실용설 4	데카르트 좌표계 3	영화적 관습 4	중간 언어 3	한계 비용 3	샘플링과 양자화 4
12.06	일치법과 차이법 3	혁신의 확산 3	플레밍의 진공관 4	영향미학과 작품미학 4	높임 표현 선택 3	근육 4

11.11	자산의 개혁 조치 4	뮤지컬 4	자료 구조 2	그레고리력 5	합성어 3	채권 가격 3
11.09	상대성이론 2	과거의 독서 방식 3	J 커브 현상 4	공리주의와 반공리주의 4	가스 센서 3	
11.06	사막의 특성 4	회화적 재현 5	광고의 효과 4	자동차의 엔진 3	한글과 한자 혼용 방식 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01. ④ 02. ⑤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②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② 13. ⑤
 14. ③ 15. ④ 16. ④ 17. 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	① ④ ①
4~9	③ ① ⑤ ⑤ ③ ①
10~13	② ④ ② ④
14~17	② ⑤ ⑤ 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	① ⑤ ④
4~9	① ③ ④ ① ② ③
10~13	① ② ④ ③
14~17	① ⑤ ④ ②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3	② ⑤ ①
4~9	① ③ ④ ③ ② ③
10~13	② ⑤ ⑤ ④
14~17	④ ② ④ 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	① ③ ⑤
4~9	② ③ ② ① ③ ⑤
10~13	⑤ ④ ⑤ ④
14~17	⑤ ③ ① 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	⑤ ① ③
4~9	③ ④ ④ ② ② ①
10~13	③ ⑤ ④ ②
14~17	① ② ④ ②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21	① ④ ⑤ ③ ④ ③
26~30	⑤ ③ ① ④ ②
34~37	② ② ④ ④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0~25	④ ① ① ② ③ ③
26~30	⑤ ① ⑤ ④ ③
34~37	① ② ③ ③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21	① ④ ② ④ ⑤ ④
25~28	① ② ② ②
29~33	② ⑤ ④ ③ ③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5~10	⑤ ① ① ④ ③ ③
16~21	② ⑤ ④ ① ② ④
30~34	② ② ② ③ 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20	② ② ④ ⑤ ②
26~29	⑤ ① ③ ①
37~42	① ③ ④ ⑤ ⑤ ③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1~26	④ ③ ① ⑤ ② ④
27~31	⑤ ⑤ ② ③ ①
38~41	⑤ ⑤ ③ ③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9~22	② ④ ⑤ ⑤
27~31	④ ③ ① ③ ②
37~42	③ ④ ⑤ ② ① ④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20	③ ⑤ ① ③ ①
27~32	② ⑤ ④ ⑤ ② ②
39~42	① ② ③ ④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1~25	② ④ ② ③ ①
29~32	② ③ ① ⑤
33~38	⑤ ④ ② ① ④ ③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21	② ④ ③ ③ ② ⑤
22~26	③ ② ① ③ ⑤
35~38	③ ① ④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19	⑤ ③ ② ③
27~32	① ⑤ ① ④ ③ ②
38~42	② ② ⑤ ④ ④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6~19	① ⑤ ③ ②
27~32	③ ④ ② ⑤ ⑤ ③
38~42	③ ④ ① ①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21	⑤ ② ③ ① ② ①
22~25	① ⑤ ① ⑤
30~34	④ ③ ② ⑤ ②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20	② ④ ⑤ ⑤ ②
33~36	⑤ ④ ① ③
37~42	③ ④ ⑤ ① ④ 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5~30	① ⑤ ④ ④ ④ ②
31~34	⑤ ② ⑤ ④
35~39	⑤ ① ⑤ ⑤ ②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6~19	③ ⑤ ③ ③
20~24	⑤ ⑤ ③ ② ①
28~33	④ ① ④ ③ ② ④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17~20	⑤	①	①	④	
21~24	③	③	③	②	
25~28	①	③	⑤	②	
29~30	④			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16~18	⑤	②		④	
19~21	②	③		③	
22~26	⑤	①	⑤	⑤	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17~20	⑤	①	④	④	
21~24	④	③	③	⑤	
25~26	⑤			②	
27~30	①	④	④	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16~18	③	①		②	
19~21	④	③		④	
22~26	④	③	⑤	④	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17~20	②	②	③	④	
21~24	③	②	③	①	
25~26	⑤			④	
27~30	④	⑤	④	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16~18	①	③		④	
19~21	②	①		①	
22~26	④	⑤	⑤	④	②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17~20	④	④	③	③	
21~24	①	②	①	⑤	
25~26	②			④	
27~30	⑤	④	①	④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16~19	③	①	③	②	
20~22	③	②		③	
23~26	④	②	②	③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17~21	⑤	④	①	②	①
22~25	①	⑤	④	⑤	
26~28	①	④		⑤	
29~30	④			③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16~18	③	③		②	
19~21	②	④		④	
26~30	③	④	④	⑤	②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17~20	④	①	④	⑤
21~24	④	①	⑤	③
25~26	⑤			③
27~30	①	④	④	①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20~21	⑤			⑤
22~25	③	④	⑤	④
26~27	⑤			①
28~30	⑤	②		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17~18	④			④
19~21	⑤	③		②
22~25	⑤	⑤	①	②
26~27	③			②
28~30	⑤	④		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				
16~18	⑤	③		④
19~21	②	⑤		④
22~23	①			③
28~30	④	④		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B형				
17~20	④	④	⑤	①
21~23	①	③		①
24~27	①	②	④	②
28~29	④			⑤
30		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A형				
16~18	④	③		③
19~21	④	②		①
26~27	③			①
28~30	②	⑤		④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B형				
17~20	④	①	④	⑤
21~23	⑤	④		④
24~27	⑤	②	③	④
28~29	④			①
30		③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16~18	①	③		③
19~21	①	②		③
26~27	③			④
28~29	①			④
30		④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1~24	⑤	②	④	④
25~28	①	④	③	③
29~31	⑤	⑤		②
39~42	③	①	⑤	①
43~45	③	③		④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16	⑤	④	⑤	④
17~19	④	③		②
24~26	③	①		①
31~34	⑤	②	①	②
40~43	③	③	⑤	④
44~46	④	③		④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9~22	①	⑤	②	⑤
23~25	③	④		②
30~33	④	⑤	④	⑤
41~43	③	①		②
44~46	①	③		①
47~50	①	⑤	④	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B형				
17~18	③			④
19~21	④	③		④
22~24	④	②		①
25~28	①	⑤	③	④
29~30	⑤			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A형				
16~18	②	④		⑤
19~21	③	④		①
22~24	①	⑤		②
29~30	③			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20	④	⑤	①	④
21~24	③	⑤	③	②
29~30	②			①
40~42	②	②		①
43~46	③	④	④	①
47~50	⑤	①	⑤	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7~20	①	②	①	④
21~23	③	④		③
24~27	③	②	④	①
28~30	①	④		⑤
35~37	⑤	⑤		③
47~50	③	②	①	②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15	④	①		②
16~18	④	④		③
29~32	①	④	④	①
33~36	②	⑤	⑤	④
44~46	③	②		①
47~50	⑤	③	②	④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20	⑤	⑤	①	②
21~24	①	①	③	③
25~26	③			①
32~36	③	③	②	⑤
37~39	⑤	④		③
44~46	③	④		③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9~20	②			①
25~27	②	②		①
28~31	②	②	③	①
39~43	③	③	③	④
44~47	②	③	⑤	⑤
48~50	①	⑤		③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3~14	①			①
15~18	④	③	①	④
23~27	①	③	③	⑤
32~35	⑤	③	⑤	①
36~38	②	②		①
44~46	①	②		②
총 763문제	☆ 수고하셨습니다 ☆			

